

# 전국 농가에 '가축 전염병' 비상사태 돼지열병·AI·럼피스킨병 동시 확산

방역당국 비상 대응 체제 돌입  
농식품부, 9개 시·군 이동중지명령  
올해 돼지열병 10번째 확진 사례  
"신속한 살처분·집중 소독 총력"

가축전염병 3종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LS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사례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한우·젓소, 가금류, 양돈 농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 홍천 소재 한 양돈농장(2500두 사육)이 돼지 폐사 사례를 방역당국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지난 3일 판명됐다. 올해 10번째 돼지열병 확진 사례다.

9개 시·군에는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4일 자정까지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홍천과 춘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횡성, 경기 양평, 가평이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및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긴급회의를 열고, 환경부에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국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접경지역



국내 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뉴시스

인 경기 및 강원에서 올해 상반기 경북까지 확대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강원 동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월 경남 창녕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AI 감염 사례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78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인접 시군이 아닌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과 점검, 검사 등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후 이달 4일에는 전북 정읍천야생 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여부는 사흘 내지 닷새쯤 뒤 발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검출지점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닭 48호, 오리 11호, 메추리 1호)에 대한 예찰 강화와 함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소 럼피스킨의 경우, 올해 1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양성 판명이 없다가, 8월 12일 첫 사례가 나온 이후 10월 하순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중부지방이 15건, 남부지방이 2건(경북 상주·문경)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집파리 등 흡혈 곤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축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 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안전 관리로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총력”

가스안전소, 법정검사·성능평가 시행  
전북 완주에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수소산업 분야 신제품과 설비 개발 시 안전분야 테스트베드로 활용돼 국내 수소산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일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인증센터 규모는 부지 3만276㎡, 연면적 7760㎡이며, 시험동, 고객지원동, 사무동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시험동은 수전해설비, 수소 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법정검사와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로 '연료전지 성능평가장비' 등 36종 102점, '유공성능 시험장비' 등 12종 14점이 구축됐고, 올해 중 '배기가스 분석장비' 등 25종 32점이 구축될 예정이다. 16개 시험실에 73종 총 148점의 검사설비를 갖추게 된다.

센터는 수소용품 4종(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의 법정검사 및 성능평가 업무와 수소용품 창업기업, 해외수출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각각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도시가스과 메탄올 등을 개질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추출하는 설비로, 생산된 수소를 이용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들어선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해 저장, 배관공급 및 수소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된다.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는 수소 등 연료가스를 이용해 전기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다.

고객지원동에서는 신생 수소용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무공간 지원, 해외수출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독일·체코·캐나다 등 해외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인증 취득 대행서비스 등 업무가 이뤄진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 산업은 안전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산업으로서, 이번 센터의 개소로 우리나라 수소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 연내 '먹는샘물 관리 개선안' 마련

환경부, 오늘 '선진화 토론회' 개최

민관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먹는 샘물 개발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5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먹는 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 음용비율이 30%를 넘고, 다양한 유통 경로(온라인 직구 및 구매대행 등)가 확대되면서 미량 규제 물질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 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총 3개 주제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먹는 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 샘물 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향후 먹는 샘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전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에너지 신사업 확장, 지속가능 경영 달성”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취임  
“연구개발·컨설팅 등 동반성장 지원”

한국동서발전 제9대 권명호 신임 사장이 4일 공식 취임했다. 권 사장은 이날 오후 울산 중구 소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첫 만남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권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최우선 경영 △차별적 중장기전략 수립을 통한 지속성장 △전사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렴·협력의 기업문화 조성 △중소기업·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에서 “설비 이용률이 감소하고, 발전소 폐지에 따라 설비용량도 줄어들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전원개발과 신재생, 신사업 분야에서 동서발전만의 중장기사업개발 추진전략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에 대한 사업 경쟁력 분석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



권명호 동서발전 신임 사장이 4일 오후 취임식 후 집무실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동서발전

해 차질없이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체되는 복합발전소도 점차 이용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혼소, 전소까지 고려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석탄화력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컨설팅 등 동반성장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 사장은 이밖에 신재생 분야의 경우 송전계통 미비를 고려해 지역별 추진전략을 재수립하고, 태양광은 영농형, 수상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육상풍력은 우수한 풍황자원과 기존 네트워크가 구축된 동해안 벨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권 사장은 취임 다음날인 5일부터 발전소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점검과 현장경영을 시작한다.

권 사장은 2006년 울산 동구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제5대 울산광역시의원, 제7대 울산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울산 동구)으로 당선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 시절 전력산업의 재정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기계자재 박람회서 950만弗 수출 계약”

농어촌공사,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1일 대구 엑스포에서 막을 내린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 95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농기계·시설자재 분야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상담회는 국내 농기계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이 직접 만나 진행하는 1:1 오프라인

행사다.

행사에는 32개 국내기업과 스페인, 일본, 중국 및 동남아 8개국 21개 구매기업이 참여해 16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19건의 업무협약이 현장에서 체결돼, 950만 달러 규모의 수출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상담회에 앞서, 해외 구매기업 선정 시 신뢰도·구매력·장기적 협력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한 뒤 이를 통해 국내기업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연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